

# 구역예배 순서지

2023.12.22.(금)

-일 시 : 정해진 날 -장 소 : 정해진 장소 -인 도 : 구역장 또는 강사

- 묵상기도/각 자
- 기 원/인도자
- 신앙고백/사도신경
- 경배찬송/새295장(통417장) “큰 죄에 빠진 나를”
- 기 도/가족 중에서
- 주일말씀과 삶의 나눔/주일예배 말씀의 은혜와 삶을 서로 나눕니다.
- 성경봉독/예레미야(렘)52:24-34(구p.1143)/구역원 중에서
- 말 씀/“예루살렘의 최후”

예루살렘의 최후를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죄에 따라 심판하시는 엄위하신 하나님인 동시에 또한 어떤 하나님이신가?

## 1.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된 후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얼마나 되며 어떻게 되었습니까?(24-30절)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친위대장)인 느부살라단은 여호와와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사면 성벽도 헐어 버리고(13-14절 참조), 성전의 각종 기물들을 약탈해 간 후에(17-19절 참조) 유다의 대제사장 1명, 부제사장 1명, 성전 문지기 3명, 성안에서 지휘관 1명, 왕의 내시 7명, 군지휘관(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왕하25:19참조))의 서기관 1명, 평민(백성) 60명 등의 사로잡아 하맛땅 립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보낸 사람들은 왕이 다 쳐서 죽였다(24-27절). 그리고 바벨론 느부갓살왕이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은 느부갓살왕 통치 제 7년에 유다인 3,023명(1차), 제18년에 832명(2차), 23년에 745명(3차)으로 총 4,600명 이었다(28-30절). 바벨론은 이렇게 3차에 걸쳐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다. 1차포로는 주전 587년에 여호야긴과 함께 끌려갔고, 2차 포로는 주전 587년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잡혀 갔으며, 마지막 3차 포로는 예루살렘이 멸망된지 4년 후이고 유다 총독 그달랴의 살해에 대한 보복으로 주전582년에 잡혀 갔다. 그리고 이 사건들은 이미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일(15:2)로서 그대로 성취되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행된다.

\*렘15:2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 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왕하 24장의 기록과의 차이문제: 왕하24:12-16절의 기록에는 8년, 19년, 포로수도 18,000명인데 이는 예레미야서는 통치한 해인 반면에 왕하24장은 즉위한 해, 예레미야서는 지도층의 사람들과 귀인들의 수인 반면에 왕하24장은 전쟁포로(군인)와 장인들 까지 모두 포함한 수였기 때문이다.

## 2. 이스라엘이 풀려날 것을 암시하는 사건은 무엇입니까?(31절) 여호야긴은 어떤 대

## 우를 받게 됩니까?(32-34절)

유다왕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간 지 37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의 에일므로닥(뜻 ‘말독의 종’, 느부갓네살2세의 아들, 신바빌로니아 제국의 왕)왕이 즉위한 원년(BC562년) 12월 25일에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기도 하였다(31절). 에일므로닥왕은 여호야긴에게 친절하게 말했고, 여호야긴의 자리를 바벨론의 다른 왕들의 자리보다 높여 주었다(32절). 죄수의 의복을 벗고 다른 의복으로 갈아입었고, 여호야긴의 남은 평생을 항상 왕 앞에서 식사를 하게 하였다(33절). 날마다 쓸 것으로 왕으로부터 받는 정량이 있었는데 그것을 죽을 때까지 종신토록 받았다(34절).

유다 왕이 풀려났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유다에 다시 은혜로운 사랑을 베푸신다는 표시였다.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가운데서도 위로와 구원의 소망을 준비하시는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어떤 환난이나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확신하며 소망을 잃지 않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끝내 돌이키지 않은 유다 백성을 약속의 땅에서 떠나면 바벨론으로 유배를 보내셨다. 그러나 여호야긴을 감옥에서 끌어내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대하셔서 회복을 소망하게 하신다. 멀리 보냈지만 영원히 그들을 잊으신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모든 성도들은 주위의 모든 압제자들로부터 긍휼을 얻게 해 주심으로 회복케 해주시는 하나님(시106:44-46)을 바라보며, 그들의 구원을 조용히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필요하다(시3:8;62:1).

## ● 나눔과 기도/다같이

1. 바벨론 포로와 해방의 과정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신앙으로 서게 하소서.
2. 수험생들의 진로를 인도해 주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지혜를 주소서.
3. 추워진 겨울 날씨 가운데 연로하신 교우들과 연약하고 병약한 모든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강건하게 지켜 주소서.
4. 올 해의 남은 기간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대림절과 성탄절을 통해 재림의 신앙을 갖게 하시고, 2024년을 위한 준비도 잘 하게 하소서
5. 송림1,2동지역 재개발사업이 잘 진행되고, 보상과 건축준비도 잘 되게 하소서.
6. 우리 교회가 동구와 인천과 온 세계를 향한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7.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과 중동전쟁이 속히 끝나고 평화가 속히 오게 하소서.
8. 북한의 핵위협이 무력화되고, 국내의 정쟁도 끝나고, 평화통일이 속히 이루소서.

## ● 마무리 기도/말은 자 중에서

- 파송찬양/새4218장(통210장) “내가 예수 믿고서”
- 주기도문/다같이